

41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 20:22~26, 벰전 1:13~17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36장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오늘 배울



1. 거룩함의 의미를 올바르게 압니다.
2.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 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벰전 1:13~17)



을 이해하기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 ‘따로 구별하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분이시며 일체의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뵈는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더불어 사는 데 익숙해 왔고 그것을 당연하고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이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따라서 온갖 죄로부터 구별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해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내세가 아닌 이생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생활 속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 위해 따로 구별되는 것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모든 측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
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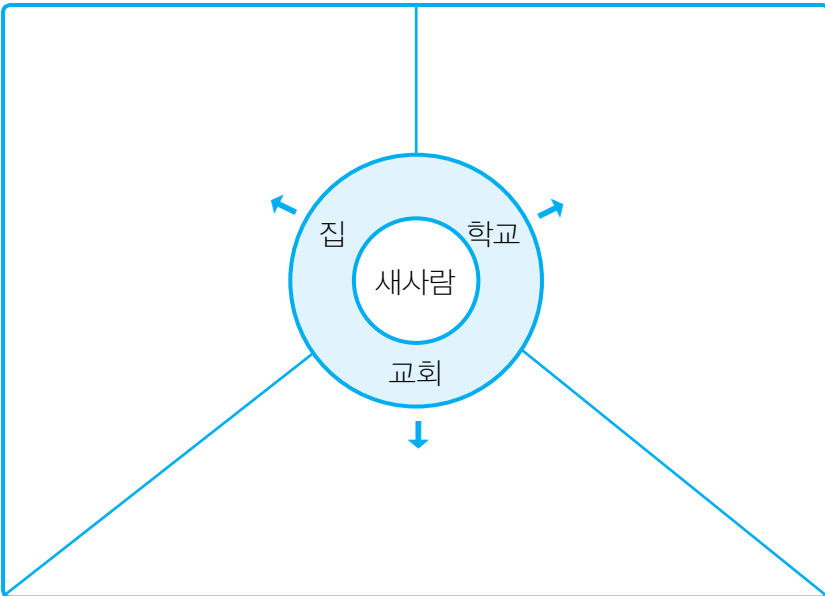
Bu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 be-
cause it is written, “Be holy, for I am holy.” (1 P 1:15~16)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지
기 원하실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에베소서 4장 24절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을 입으라”는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새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을 간단히 적어 봅시다.



2

그리스도인은 죄악에서 구별되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멀리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각각 적어 봅시다.

3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적고, 교제해 봅시다(딤후 4:5, 엡 5:26, 히 12:14, 살전 4:3).

4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PC방이나 노래방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장소에 함께 가자고 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적어 보세요. 또한 분반 친구들과 교제해보고 좋은 방법을 적용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엡 4:24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월

엡 5:26

화

살전 4:3

↑

딤편 4:5

↓

히 12:14

↓

벵전 1:16

↓

벵전 3:15



흰옷 입고 탄광 안에 들어갈 수는 있다?

그리스도인 젊은 부인이 자신의 유흥가 출입을 변호하면서 그녀를 염려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래, 물론 네 말이 틀리진 않아. 그런데 내가 작년 여름 친구들과 탄광을 견학한 일이 있었어. 그날 한 젊은 여자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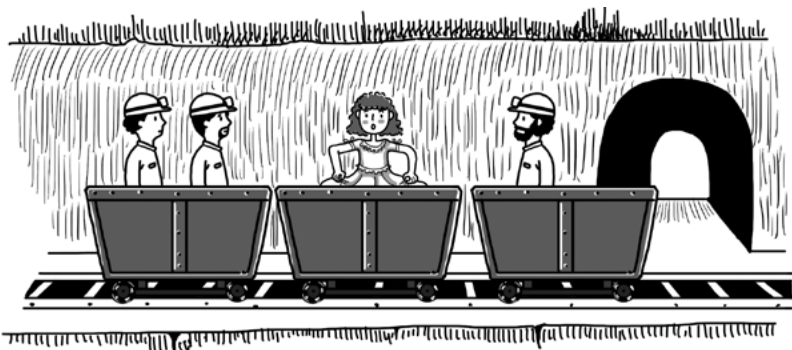
내가 그녀에게 그런 옷차림으로는 견학이 힘들겠다고 충고를 했더니, 그녀는 안내인에게 묻는거야.

흰옷을 입고 탄광 안에 들어갈 수 없냐고, 그때 안내인은 이렇게 대답했어.

“아닙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탄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탄광 안에서 흰옷을 그대로 입고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더러워진 사람들과 사귀을 원할 때 흰옷을 입었다고 방해하는 것은 없지만, 그 후 계속 흰옷을 입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1~24)



질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이 선택할 자유는 없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믿고 믿지 않고는 자기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즉,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도 공기도 주셨지만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롬 2:4~5)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을 받고 받지 않고는 자기 선택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